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비전 2030, 목표는 의욕적이나 현실성은 결여
- IMF, 내년 세계 경제 경착륙 경고

경영 노트

- 선진 기업들의 R&D 전략 : 기술 연합과 기술 거래 활성화

사회 트렌드

- '트윈슈머'와 '와이프로그'
- 사이버리아(Cyberia) 탈피

저널 브리프

- ASEAN, 'FTA 허브(Hub)'

洗心錄

- 워렌 베니스의 리더십 기술

□ 비전 2030, 목표는 의욕적이나 현실성은 결여

- 정부는 지난 30일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30년 한국은 1인당 GDP 4만 9,000달러, IMD 기준 삶의 질 세계 10위 등 선진 복지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함
 - 세부적으로는 2030년 고용률(15~64세) 7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3명, 육아 비용 부모 부담률 37%,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율 100% 등의 목표를 제시
 - 그러나 이는 연평균 성장률 3.8%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향후 25년간 약 1,0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과 같이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일본의 2030 비전과 비교해 볼 때 비전의 목표 설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양적 투입과 무역 의존 중심의 성장 전략 추구, 공급자 중심의 정책 구상과 같은 20세기 산업 시대의 발전 전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됨(한일간 2030 비전 구상 비교와 시사점 참조)

□ IMF, 내년 세계 경제 경착륙 경고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5.1%에서 내년에는 4.9%로 하락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3%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음을 경고함
 - IMF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주택 시장 위축으로 유발되는 美 경기 급랭, 글로벌 인플레이,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들고 있음
 - 또한 후발 개도국이나 중진국에 비해 선진 7개국 (G7)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9%에서 내년에 2.5%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정부와 기업은 향후 예상되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르는 국내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 급감, 주요 수출 대상국들과의 통상 마찰 등에 의한 수출 경기 하강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일간 2030 비전 구상 비교와 시사점 >

한일의 비전 2030 작성 배경

- 대외적 배경
 - 세계화 심화, 국제 분업 및 경제 통합의 진전
- 대내적 배경
 -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저하와 저성장세 지속
 -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 심화

비전 2030 체계의 한일 비교

	한국	일본
모토	함께 하는 희망 한국	새로운 약동의 시대
목표	-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 안전하고 기회 보장되는 사회 -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	-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 건강 수명 80세 - 민간 주도의 풍요 小, 작은 정부
추진전략	- 성장 동력 확충 - 인적 자원 고도화 - 사회복지 선진화 - 사회적 자본 확충 - 능동적 세계화	-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 형성 - 글로벌화의 적극 활용 - 국민이 원하는 공적 수요 제공 체제 구축

비전 2030 주요 부문별 한일 비교 평가

목표	- 한국: 정량적 목표를 강조 - 일본: 질적 성과를 강조
경제 성장 전략	- 한국: 투입 의존형 성장 전략 - 일본: 효율성 제고형 성장 전략
경제 구조 변화	- 한국: 무역 의존형 구조 - 일본: 투자 입국형 구조
복지	- 한국: 시혜적 복지 정책 - 일본: 자립지원형 복지 정책
재정	- 한국: 큰 정부 지향 - 일본: 작은 정부 지향
교육	- 한국: 공급자 중심 - 일본: 수요자 중심

시사점

- 효율성이 중시되는 21세기 세계화, 지식 사회에서는 일본의 작은 정부 추구, 민간 주도 경제 지향, 수요 중심의 교육 정책 방향 등은 한국도 고려해야 할 부분

□ 선진 기업들의 R&D 전략 : 기술 연합과 기술 거래 활성화

- 선진 기업들은 산학간 ‘기술 연합’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중개 시장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적 R&D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실용적인 신기술의 산업계 공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기술 평가, 자금 제공, 인큐베이팅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R&D서비스를 중개하는 시장을 활용하여 독자적 R&D의 한계 극복을 추구함
 -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것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여 기술 사업화를 위한 R&D서비스업체 및 기술거래시장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임

- 산학의 기술 공동체 강화로 기업과 대학의 상생을 지향하고, 기술거래시장을 통하여 사업화 니즈를 충족하는 첨단 기술 확보를 추구
 - BMW의 첨단 자동차 장치인 ‘아이 드라이브’*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과의 산학 협력에 의한 산물이며, IBM의 경우도 바이오 기술에 관한 R&D전략의 일환으로 호주 전역의 14개 대학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음
 - 이에 대학도 실용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학과 및 커리큘럼을 개설,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화 니즈를 충족하는 기술 공급을 통한 현장 체험의 기회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기술백화점인 ‘스탠퍼드 리서치 인스티튜트(SRI)’, 일본은 대학과 기업을 중개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실용적인 첨단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은 글로벌 차원의 산학연계 및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
 - 기업은 대학과의 기술연합 강화를 통하여 첨단기술 및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또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거래시장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기술전문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혁신적 기술의 상시적 탐색을 추진해야 함

* 오디오, 비디오, 네비게이션, 공조장치, 차량 상태 점검을 비롯한 700여 가지 기능을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트윈슈머’와 ‘와이프로그거’

- (트윈슈머) ‘트윈슈머’(Twinsumer)란 트윈(Twin, 쌍둥이)과 컨슈머(Consumer, 소비자)의 합성어로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의 인터넷 사용 후기를 참고하는 사용자를 지칭
 - 최근 트윈슈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의료계인데, ‘한국 미인 비만&성형 클리닉’ 조사에 의하면, 환자의 38%가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을 보고 병원을 찾음
 - 전통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친구나 주위 사람의 추천’(26%)보다 월등함
- (와이프로그거) 이와 관련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으로 무장한 ‘와이프로그거’(wife-logger)의 활동이 두드러짐
 - ‘와이프로그거’란 ‘주부’(wife)와 ‘블로거’(blogger)의 합성어
 - 요리·인테리어·육아 등에 관한 알짜 정보를 생활 속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의 블로거에 소개하는 주부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스타도 출현하고 있다고 함
 - ‘와이프로그거’와 이를 추종하는 ‘트윈슈머’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어서 이들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의 중요한 표적이 되고 있음

□ 사이버리아(Cyberia) 탈피

- ‘사이버’(Cyber)와 ‘시베리아’(Siberia)의 합성어로서, 되도록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웹사이트를 말함
 - 즉 형편없는 디자인에 황량한 모습을 하거나, 단조롭거나, 유용한 정보가 없거나, 너무 느리거나, 낡은 정보만 가득 찬 사이트를 말함
 - 마케팅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어지는 페이스 팝콘이 <미래생활사전>에서 만든 조어임
- 만약 사이트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업데이트 하여 항상 새롭고 생동감 있는 사이트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객을 ‘사이베리아’에 유배시켜 가두어 두는 셈임
 - ‘회사의 얼굴’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

□ ASEAN, 'FTA 허브(Hub)' 목표*

- (FTA 중심국으로 거듭나려는 ASEAN) ASEAN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국 등 주요 통상국들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목표로 하는 'FTA 허브' 전략을 적극 추진 중임
 - (ASEAN의 경제 발전 전략) 거대 경제권인 ASEAN은 외환위기 이후 자체 결속 강화, ASEAN+3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 중임
 - ASEAN 경제규모: ASEAN은 인구 5억, 시장 규모 1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임
 - ASEAN, ASEAN+3 협력 강화: 역내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TA)을 활성화시키고 한, 중, 일과의 무역, 투자, 금융 협력을 강화함
 - (美-ASEAN 경제 협력 강화) ASEAN은 올해 8월에 무역 및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TIFA를 체결함
 - ASEAN의 대미 경제 의존도: 2005년 美-ASEAN 무역 규모는 1,529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2005년 對ASEAN 투자는 87억 달러로 ASEAN의 입장에서는 최대 투자국임
 -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무역투자프레임워크협정): 상품 무역의 관세 자유화를 제외한 협정이며, FTA의 직전 단계에 해당됨
 - (주요 통상국들과 FTA 체결) ASEAN은 지난 6월 한국과의 상품분야에 대한 FTA를 타결하였으며, 이외에도 현재 중국, 일본, 인도와도 FTA 협상이 진행 중임
- (시사점) ASEAN의 'FTA 허브 전략' 의 예와 같이 세계 무역 질서가 FTA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이러한 추세에 뒤쳐질 경우 장기적인 교역과 투자 축소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최근 지지부진한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EU 등과의 FTA 추진, 거대 경제권인 ASEAN과의 경제 협력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교역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 글은 『ECONOMY21』(2006.09.12)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위렌 베니스의 리더십 기술

리더십 분야 최고 전문가로는 단연 위렌 베니스(W. Bennis)를 꼽는다. 경영과 리더십에 관해 25권의 저서를 펴내고, 1,5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정리한 인간 관계에 관한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터 그라스, 『비즈니스 위즈덤』)

첫째,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는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들로 받아들이는 능력. 사람들을 선불리 판단하려 들지 말고, 다른 사람의 ‘껍질 속에 들어가 보고’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그들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둘째, 인간관계 및 여러 가지 문제에 과거가 아닌 현재의 맥락으로 접근하는 능력. 과거의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논의하거나 과거에 얽매어 현재를 그르쳐선 안된다. 과거의 실수는 현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도약대여야 한다.

셋째, 낯선 사람이나 그리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정중한 태도를 절친한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절친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친숙함은 오히려 인간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아 오해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리스크가 아주 커 보이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만약을 위해 신뢰를 보류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거나 실망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신뢰하는 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능력하며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현명하다.

다섯째, 다른 이들로부터 항상 동의나 인정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능력. 특히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항상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해로울 뿐 아니라 비생산적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좋아하는가’가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나오는 일의 질이다.

“얼마나 깊게 고뇌할 수 있는가가 인간의 수준을 결정한다.”

- 니체(1844~1900) : 독일 철학자